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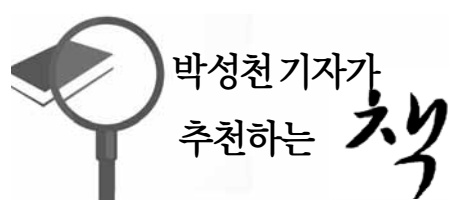
“한국 풍수는 사람과 자연, 그 만남의 미학”



남원고을의 풍수비보 사찰인 만복산 선원사. 남원의 주산인 백공산의 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해 이를 북돋고자 백공산의 날줄기 끝에 세웠다고 한다.



왕릉의 지형적 입지가 신라시대에는 평지와 구릉지, 고려시대에는 산복, 조선 시대에는 산기슭으로 변천했다. 사진은 조선 세종의 영릉.



사람의 지리 우리 풍수의 인문학

최원석 지음

“한국인은 풍수를 참 잘 썼다. 풍수논리에 삶을 끼워 맞추기보다 살아가는 방도로 풍수를 유연하게 활용했다. 부족하다 싶으면 보완해서 살 만한 터전으로 만드는 지혜를 발휘했다. 그래서 한국풍수의 정수는 생활에서 활용했던 풍수에 있다. 특히 서민들이 썼던 풍수는 참 쉬웠다.……백성들에게 살터는 산과 물이 적당히 둘러 있고 양자바르면 됐다. 마을 동구엔 빈 구석이 있다면 산에서 나무를 옮겨다 심으면 됐다.”(본문 중에서)

“한국풍수는 ‘사람과 자연, 그 만남의 미학’이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장을 역임한 최원석 박사가 주인공이다. 그는 좋은 풍수, 좋은 명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깨치면 어디든 극락정토”라고 강조한다.

마음 깨치는 곳이 극락정토… 불교·유교와도 밀접한 관계
우리민족의 창의적 실천 정수인 풍수의 정체와 특징 조명

윤선도·이중환·최한기 등 풍수사상이 5인 소개도

이번에 최 박사가 펴낸 ‘사람의 지리 우리 풍수의 인문학’은 심오한 한국 풍수의 정체와 특징을 조명한다. 지금까지 그는 ‘한국의 풍수와 비보’, ‘전통생수와 풍수지리’ 등 다수의 책으로 독자들에게 풍수를 소개해왔다.

사실 풍수의 이미지는 오랫동안 ‘미신’과 결부돼 있었다. 어떤 이들은 가십성 TV프로에 출연한 무속인이나 도인이 땅의 형세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을 떠올린다. 그러나 풍수는 선입관이나 편견으로 재단할 만큼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1200년 전 들어와 우리민족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을 정도로 밀접한 요소였다.

저자가 보는 우리 풍수는 현장에서 봐야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생활풍수’다. 문헌에 남아 있는 ‘좌청룡 우백호’ 같은 기록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다. 그보다 마을 고유의 설화나 풍수와 관련된 자연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풍수는 우리 민족의 창의적 실천의 정수”라고 믿는다.

한국풍수의 다른 특징으로 불교와의 오랜 만남을 들 수 있다. 한국풍수의 시조를 승려인 도선(道詵)으로 보는 것과 무관치 않다.

대부분 사찰을 풍수적 입지경관을 고려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최 박사는 “불교 전래 이전부터 한국에는 산천이 수려한 땅에 신령한 기운이 깃들어 있다고 여겼다”며 “화엄사상이 중국에서 들어오면서 불보살이 우리 산천에 깃들어 있다고 여기면서 전통적인 교종계 사찰은 주로 이러한 불령지에 건립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인에게 자연과 마을의 간격 없이 나타나 하나가 되는 이치와 같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천연명당, 비보(裨補·약한 것을 보태)명당, 마음명당을 예로 든다. 천연명당은 완벽한 땅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비보명당은 노력으로 일굴 수 있는 살 만한 땅을 일컫는다. 그리고 마음명당은 염매임이 없는 공간적 제약을 벗어난 상태다. 그런 관점에서 저자는 “한국풍수는 사람이 살 만한 명당을 갖추고, 또 내 마음을 명당으로 여기기에 인문학이다”고 강조한다.

칼 융의 분석심리학을 대입해 봐도 상통되는 면이 있다. 융은 명당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무의식의 원형상이 투사된 것으로 본다. 즉 “마음에 있는 이상적인 상

태가 그 생각대로 자연에서 구상화된 것”이다. 달리 말하면 “마음과 자연이 합치된 표상”을 뜻한다.

책에는 풍수사상이 5인도 소개돼 있다. 주자학적 지리인식이 눈에 띄는 장현광, 보길도에서 살터풍수의 아름다움을 실증한 윤선도, 묘지풍수에 두각을 나타낸 권섬, ‘풍수종합사전’으로 불리는 ‘택리지’의 저자 이종환, 기학적 지리인식이 특징인 최한기가 그들이다.

모두 당대의 내로라하는 유학자들인데 “유학사상은 본래 자연풍토에 순응하고자 하는 환경사상”이므로 풍수와 유교의 만남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한편 저자는 “오늘날 동아시아 풍수는 전통적인 지리환경지식이자 환경인문학으로 재정립되는 추세에 있다”며 “21세기의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과 환경관리에 풍수는 영감과 시사점을 제공할 전통지식으로 충분한 잠재적 가능성을 세계적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덧붙인다.

〈한길사·2만4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약력

소설가인 박성천 기자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국문과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에 출강중이며 소설집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편해영 지음 ‘죽은 자로 하여금’

발표하는 소설마다 목작한 무게감과 강한 메시지로 울림을 주는 작가 편해영이 다섯 번째 장편 ‘죽은 자로 하여금’을 펴냈다. 작품은 월간 ‘현대문학’의 특집 지면 ‘현대문학 핀 시리즈’의 첫 번째 소설선으로 지난 2017년 7월호 ‘현대문학’에 발표된 소설에 200매를 더해 장편소설로 재탄생했다.

소설은 지방도시의 한 종합병원을 배경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 논리 속에서 번성과 욕망 사이에 고뇌하는 인물의 심리를 세밀하게 그려낸다. 위태로운 오늘의 시대 문명의 희망에 관여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인시(市)에 위치한 선도병원에 근무하는 이석은 병원에서 평판이 가장 좋은 직원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다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선도병원으로 내려온 무구는 이석 덕택에 병원에 안정적으로 적응한다. 조선업의 발달로 성장해나갔던 이인시는 그러나 조선업의 몰락과 함께 병원의 존폐 위기에 놓이고, 병원은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 새 프로젝트 팀을 꾸린다.

새 팀에 투입된 무구는 생각지 못한 이석의 비리들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 이면에 아픈 이석의 아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석의 비리 앞에 고민하던 무구는, 때마침 곧 태어날 자신의 아이에게 당당한 아버지로 서기 위해 이석의 비리들을 비밀리에 고발한다.

황중연은 작품해설에서 “편해영이 ‘죽은 자로 하여금’에 그려놓은 이인시는 아마도 김승옥의 무진, 박완서의 현저동, 조세희의 행복동, 신경숙의 구로동 등과 함께 한국 문학 독자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고 평한다. 〈현대문학·1만3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정한아 지음 ‘울프 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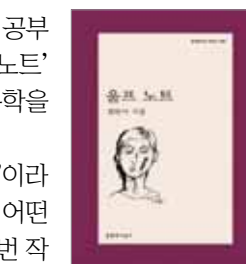
2006년 ‘현대시’로 등단했으며 10년 넘게 철학과 문학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정한아 시인이 두 번째 시집 ‘울프 노트’를 발간했다. 정 시인은 학부에서 철학을, 박사과정에서 문학을 공부했으며 ‘어른스러움’을 펴낸 바 있다.

한때 ‘신세대’, ‘X세대’라 불렸으나 지금은 ‘포스트 386’이라 지칭되며 문학적으로는 ‘포스트 미래파’로 묶이곤 한다. 어떤 것도 딱 떨어지지 않는 어정쩡한 세대명에 속한 시인은 이번 작품집에서 가식 없이 솔직하게 느낀 세계와 일상을 담아낸다. “세상에는 덜 치명적인 방법으로 복수하고 싶은 억울하고/ 몹시 내성적인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그가 울프 씨의 언제 적 모습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단독〉아마도, 울프 씨?에는 늑대를 지칭하는 ‘울프’가 등장한다. 정 시인의 시에서 울프 씨는 문체를 부풀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불의와 타협하지도 않는다. 태생적으로 불화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다. 명확하고 간결한 세상과는 다른 영역에 존재하지만 한편으로 세상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견인한다.

아마도 이 부정성의 세계에서 매일매일 분투하며 싸워나가야 할 외로운 울프 씨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이 결국 시인의 시적 지향점인 것 같다.

조재룡은 ‘부정성의 시학’이라는 해설에서 “정한아의 시는 가식이 없다. 에두르지 않고 직접 치고 들어가는 날카로운 창과 같은 언술, 그래서 결국, 솔직하다는 말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실천적 발화, 팔짱을 끼고 멀리서 이해한다고 위로하며 주역거리는 연민이나 동정이 아니라”고 평한다.



〈문학과지식사·8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이기정 엮음 ‘입시의 몰락’

“해답과 결론을 내자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더 치열하고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길이 안 보일수록 더 치열하게 논쟁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입시와 교육을 날카롭게 비판한 책이 출간됐다. 현직 고교 교사이자 ‘학교 개조론’ 등을 펴낸 이기정 씨가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 이해정 교육과학혁신연구소 소장, 고영우 전국국어교사모임 이사장을 비롯한 교육 전문가 4인을 인터뷰해 ‘입시의 몰락’을 엮었다. 책은 입시 제도의 폐해와 명문 수업 교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면서 입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입을 연다.

책은 능력이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로 학생의 창의적 사고를 가로막았고 기계적 문제 풀이 학습만 반복하게 했다고 본다. 그로 인해 수십만 학생을 냉혹하게 한 줄로 세우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신 시험은 비인간적으로 친구를 최대 경쟁자로 만들었고 주입식, 암기식 저차원의 학습을 조장했다.

이현은 학생에 대해 ‘주관적 서류’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현재 입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구조적으로 학종이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학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기정은 새로운 교육의 희망을 고교 학점제에서 찾고 있다. 고우용은 고교 학점제의 성공을 위해 “절대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교사별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책에는 교육전문가들의 치열한 고민과 뜨거운 논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 문제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화두를 던진다.

〈창비교육·1만5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S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칼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